

## 피아니스트 김혜진

2005년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중 하나라고 일컫는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사상 최연소 3위에(당시 만 17세) 입상하면서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연주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당시 부조니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자 현재 다수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는 Andrea Bonatta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음악성과 테크닉에 감동했다'라고 극찬하였으며 그 후 2008년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Vladimir Ashkenazy로부터 '따뜻한 가슴을 지닌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으며 다시금 그녀의 음악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일찍이 국내에서도 음연 콩쿠르, 한세대/국민일보 콩쿠르, 틴에이저콩쿠르, 이화·경향, 쇼팽콩쿠르, 대구방송콩쿠르 등을 석권한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그 외 다수 국제콩쿠르(Stainway & Sons Advanced Award Competition, 칸투 콘체르토 국제 콩쿠르, 네델란드 영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재단인 DAAD(독일 학술 교류처)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였고, 2014년 토론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입상하며 꾸준히 본인의 실력을 입증시키고 있다.

베를린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내면의 열정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채워진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힌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독일의 주요 오케스트라인 Konzerthaus Orchester Berlin, Frankfurt Rundfunk Orchester, Schumann Philharmonic, Nordwestdeutsche Philharmonic, Wuettemberg Symphony, Nuernberg Symphony 등과 협연하였으며 그 외 Pacific Symphony, Praha Radio Symphony, Sinfonica di Roma, Budapest Symphony, Orchestra Symphony Porto Alegre, Moravian Philharmonic, Martinu Philharmonic 등 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전 시립 교향악단,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하였고 Eliahu Inbal, Andreas Orozco-Estrada, Yehuda Gilad, Carl St. Clair, George Mester, Achim Fiedler, Ola Rudner, Tomas Hanus, Edward Topchjan, 김대진, 성시연, 윤승업, 장윤성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 외 Marvao music festival, Ruhr Piano Festival, Napa Valley Music Festival, Cesky Krumlov Festival, Praha Spring Festival, 교향악축제, 서울 국제 음악제 등 국내외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되며 독주와 협연 활동만큼이나 주변의 음악인 동료들과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왕성한 연주자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녀는 Jean-Yves Tibaudet, Yoheved Kaplinsky, Jerome Rose, Robert Macdonald, Aquiles delle Vigne, Bernd Geotzke 등 저명한 교수진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실력과 재능을 인정받으며 자기개발에 주력하였다.

2013년 Armenia philharmonic과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1/2번으로 소니에서 첫 음반을 발매하고, 2015년 사라 장을 비롯한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IMG 클래식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한 층 더 발돋움하여 활발한 연주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김혜진은 한국에서 윤영미, 김미경 교수를 사사하며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재학 중 만 17의 나이에 도독하여 Fabio Bidini 교수의 가르침 아래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HfM Hanns Eisler)에서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최고점으로 취득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2018년 Colburn School에서 Artisit Diploma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17/18시즌부터 본교인 Colburn school에서 연주자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본격적인 후학양성에도 발돋움하고 있는 김혜진은 지난 2월 Russian state Philharmonic과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으로 성공적인 영국 데뷔무대를 마쳤으며 Grammy 노미네이트 프로듀서 Philip Traugott과의 첫 솔로 음반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18/19시즌 오프으로 9월 Buffalo Philharmonic 과의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협연 (지휘 : JoAnn Falletta), 10월 SOKA performing Arts center 에서의 솔로 리사이틀, San barnadino Symphony Orchestra 와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협연 (지휘 : Laura Jackson) 등의 중요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19/20 시즌에는 스승인 Fabio Bidini 교수와 듀오 faculty 리사이틀을 포함, 뉴욕 Westchester Philharmonic 과의 거쉰 협연, 플로리다 Grand Piano Series 주최의 베토벤 전곡 소나타 프로젝트 일원뿐만 아니라, Colburn School 교수진(Community school/Colburn Academy) 으로서, 그리고 Salastina music society의 상주 피아니스트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여김없이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